

IFLA

연례보고서

201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org

# 우리의 주요 활동

2018년에 IFLA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연결과 영감, 참여의 시대에 진입했다. 글로벌 비전(Global Vision) 논의 2년 차를 맞아 우리는 글로벌 비전의 10대 기회를 실현할 방법을 탐색하는 데 주력했다. 실시간 중계된 회장 주재 회의(President's Meeting)에서 발표된 IFLA 글로벌 비전 보고서의 요약본은 2018년에 연중 진행된 글로벌 비전 논의의 틀을 형성했다. 이 논의에서 도서관계는 실천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디어 스토어를 건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상향식 접근법은 글로벌 비전 지역 워크숍,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 글로벌 회의(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Global Convening), 지역 회의, 유엔 고위급 정치회담(UN-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추진되었다.

## 글로벌 비전과 2018년도 회장 주재 회의

2018년 3월에 개최된 IFLA 회장 주재 회의는 글로리아 페레스-살메론(Glòria Pérez-Salmerón) 회장 주재로 개최된 첫 회의였을 뿐 아니라, IFLA 글로벌 비전 논의 제2기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다.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왕립조선소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변화의 동력으로서 앞길을 선도하는 도서관(Leading the Way: Libraries as Motors of Chang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페레스-살메론 회장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열정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도서관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이 갖는 고유한 가치들이 더욱 빛나게 되었음을 역설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한 다양한 모습의 미래를 구상하는 성숙하고 성찰있는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회장 주재 회의에 참가한 발표자 중 4명의 원고가 실린 2018년도 동향보고서 업데이트(Trend Report Update 2018)를 참고하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IFLA 글로벌 비전 논의 제1단계의 요약보고서에 대한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워크숍 참가자 9,000여명의 의견과 21,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90개국 등이 참여한 전례 없이 풍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니 무려 600,000여 줄의 데이터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단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10가지 하이라이트와 기회가 도출되었다. 우리의 단합은 IFLA의 미래 전략을 기획하는 것뿐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뒤이어 진행된 출범 워크숍에서 이미 도서관계의 방향을 고안하는 기본 틀로써 요약 보고서가 갖는 잠재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IFLA의 모든 전문 단위 대표들은 이틀에 걸쳐 제시된 기회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IFLA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을 논의했다.

##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자: 모든 사서가 홍보대사!

글로벌 비전 제 1단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칠레와 프랑스, 베트남, 캐나다, 남아프리카, 튀니지에서 6개의 지역 워크숍이 조직되었고, 회원 기관과 전문 단위들은 자체적인 자문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요청 받았다. 그 목표는 전 세계 도서관계의 모든 부문을 참여시키고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1년 내내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도서관계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세계 도서관계의 연결, 영감, 참여라는 주제에 맞추어 2018년도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브록클린 공공도서관

(Brooklyn Public Library)과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지원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IFLA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 글로벌 회의(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Global Convening)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유엔 본부를 방문해 자국에서 파견된 대표부와 공직자들을 만났다. IFLA는 또 유엔 지역사무소가 조직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에 관한 다섯 개의 지역 회의에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지역 행사에서 진행된 부대 행사에서 도서관과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선언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 행사들은 7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함께, 개발과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 IFLA 세계도서관지도와 스토리텔링

세계도서관지도(Library Map of the World, LMW)는 2017년에 도서관에 관한 기초 통계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단순한 도서관 데이터 제공과 UN SDG와 관련된 도서관 스토리들을 제공하는 정보원의 차원을 넘어서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WLIC 2018에서는 중요한 새로운 기능으로써 국가별 페이지(Country Pages)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국가별로 도서관의 지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LMW팀은 도서관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이 지역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FLA의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IAP) 및 IFLA의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Leaders Programme, ILP)의 어소시어트(associate)들과 협력하여 '도서관과 지속가능 개발목표 : 스토리텔링 매뉴얼(Librar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torytelling Manual)'을 제작했다. 그래서 이 매뉴얼과 온라인 제출양식(companion online submission form)을 통해 UN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보다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FLA는 세계 각국의 사서와 도서관 지지자들이 LMW SDG 스토리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글로벌 비전 아이디어 스토어와 보고서

## 글로벌 비전 아이디어 스토어와 보고서

# 8,596

행동 아이디어

# 154

UN 회원국 참여

# All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아이디어 제출

WLIC 2018에서 IFLA는 아이디어 스토어와 글로벌 비전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했다. IFLA는 도서관계의 행동을 위한 최대 규모의 아이디어 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사서들이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글로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높은 포용성과 접근성으로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 스토어에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 플랫폼을 다중 언어로 만들고 IFLA의 7개 언어 모두로 제출이 가능하게 했다. 아이디어 스토어와 동시에 2017년도 글로벌 비전 논의를 분석한 740 페이지에 달하는 글로벌 비전 보고서의 전문도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지역과 도서관 유형, 도서관 경험의 정도를 포괄하여 우리 모두가 도서관의 유구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가치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도서관 유형과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비전에서 행동으로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자원과 인력을 동원한 덕분에 현재 IFLA는 미래 전략을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도서관계 전반에 걸쳐 190개 유엔 회원국에서 30,000여 명이 도서관의 강점과 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154개 유엔 회원국에서 8,500여개의 아이디어가 한 곳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았다. IFLA는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2019-2024 IFLA 전략계획을 위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비전에서 적시한 10가지 기회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의 관점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창의성과 다양성, 혁신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영감 넘치는 행동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일이 가능했다.

일차적으로 수집된 아이디어들은 도서관 경험과 유형, 지역, 국가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2019년에 IFLA는 단합된 도서관계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며 도서관계의 행동을 위한 최대 규모의 아이디어 스토어에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 스토어는 전 세계 모든 사서가 활용할 수 있는 영감 넘치는 아이디어의 보고이다!

글로벌 비전 프로세스에서 얻은 결과와 함께 아이디어 스토어는 이사회가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이다. 이것은 회원들의 우선 과제와 수요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IFLA의 능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 IFLA 전략계획

## 강력한 가버넌스로 뒷받침되는

IFLA의 전략계획은 2016-2021년을 향한 우리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그것의 목표는 IFLA 조직의 거버넌스와 활동을 안내하는 것이다.

IFLA 이사회는 2016-2021년 주요 이니셔티브와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

### 1. 사회에서의 도서관

- 1.1.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독서와 리터러시를 증진시킨다.
- 1.2. 국제기구들의 의제에 도서관을 포함시킨다
- 1.3. IFLA 동향보고서(IFLA Trend Report)를 기반으로 한다.
- 1.4.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IFLA 표준을 증진한다.

### 2. 정보와 지식

- 2.1.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 환경을 규정한다.
- 2.2. 공정한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
- 2.3.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 3. 문화유산

- 3.1. 보존센터들(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Centres, PAC)의 네트워크를 전세계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센터로 확립한다.
- 3.2. 다양한 형태로 된 콘텐츠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 3.3.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을 보호한다.

### 4. 역량 강화

- 4.1.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인다.
- 4.2.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IAP)을 이행한다.
- 4.3. 리더십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 4.4. '강력한 도서관협회 구축(Building Strong Library Associations, BSLA)'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4.5. 활동 전반에서 지역 및 분야별 역량과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IFLA를 강화시킨다.

주요 이니셔티브와 활동은 IFLA의 이사회가 회원 대표,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 자문단, 지역사무소와 언어 센터, 파트너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운영단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IFLA의 전문 단위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한다.

IFLA의 전략적인 방향은 강력한 거버넌스, 근거 기반의 실행과 연구, 탄탄한 정책과 표준으로 뒷받침된다.

# 전략 방향

## 전략방향 1: 사회에서의 도서관

리터러시(Literacy)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서 필수이다. 리터러시란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회로 가는 관문이다.

IFLA는 개발의 동력이자 검열과 제약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보다 포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기본 리터러시

IFLA는 책에 대한 애정과 함께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증진하는 일도 중시하고 있다. IFLA는 여러 분야로 구성된 실무단을 통해 도서관이 국가의 독서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를 준비 중이다. 이 정책 도구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2019년에 발행될 예정이다. IFLA는 세계평생학습연맹(Global Alliance for Lifelong Learning)에도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29개국에서 온 장관과 고위 각료들이 역량 강화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경청했다. 이 연맹의 다음 회의에서는 사례들을 보여줄 기회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IFLA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th) 및 국제리터러시협회(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와의 양해각서를 갱신하였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국제적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 미디어와 정보리터러시

IFLA는 미디어와 정보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도서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가짜 뉴스에 대한 새로운 성명서는 이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을 지지하고 웹사이트와 다른 정보들을 부당하게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IFLA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미디어 정보리터러시 주간(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Week)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행사를 기획했고 회원들이 각자의 활동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유네스코,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캐나다의 라이츠큰(RightsCon) 행사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IFLA 정보리터러시분과(Information Literacy Section)는 계속해서 전세계의 전문가들을 통해 정보리터러시와 관련한 도서관의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 인권보호와 증진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로, 도서관계 안팎에서 도서관 활동을 위해 그리고 도서관 활동 안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IFLA는 그 당일에 일련의 블로그와 자료들을 공유했고 전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IFLA는 유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 조사관(Special Rapporteurs on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and Cultural Rights)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유엔인권대표부를 방문하여 도서관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전략방향 2: 정보와 지식

정보의 접근, 이용 및 공유 방법을 결정하는 정책과 법률은 도서관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도서관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에 맞추어 규정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IFLA는 모든 수준에서 도서관이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저작권

시대에 부합하며 포괄적인 저작권 예외 규정과 제한은 도서관이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이다. 라이선스는 유료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등 많은 경우에 적절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답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IFLA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도서관이 국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회원국들은 2019년에 일련의 보고서와 지역 회의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준국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이 거둔 지속적인 성공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IFLA는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라케시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사서들을 위한 IFLA의 지침서는 이 조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IFLA는 또한 '접근 가능한 도서컨소시엄이사회(Accessible Book Consortium Board)'의 상임이사가 됨으로써 도서관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IFLA는 유럽연합에서 도서관에 영향을 끼치는 저작권 법안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정 법률도 해당국 내에서의 도서관 활동을 상당히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FLA는 또 콜롬비아와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의 저작권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 유엔과 같은 정부간 기구에서 발행한 저작물의 오픈액세스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IFLA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를 둘러싼 문제와 우리 회원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의 범위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다. 2018년에는 또 저작권 리터러시와 저작권 교육에 관한 새로운 성명서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하고 도서관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개방형 정보 인프라

IFLA는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지, 지원을 원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의 공공 인터넷 접근성을 매우 중시한다. 2018년에는 인터넷 연결성을 지지하는 도서관과 도서관협회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사서들이 이용자들에게 공공 인터넷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두 자료는 모두 2019년에 출판 예정이다.

IFLA는 또 인터넷 중립성에 관한 도구를 제작하고, 유네스코 인터넷 보편성(Internet Universality) 지표들에 기여함으로써 그러한 지표들이 도서관의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우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도서관 장서에서 특정 자료를 삭제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관련해 아카이브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성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 전략방향 3: 문화유산

미래 세대에 과거와 현재의 사상과 지식, 창의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서 유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은 이러한 유산의 수호자로서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IFLA는 도서관이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전문적인 지원과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IFLA는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2018년에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emory of the World Programme)과 2015년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권고(2015 Recommendation on Documentary Cultural Heritage)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 IFLA의 PAC 보존센터

문화유산을 둘러싼 IFLA의 활동은 전세계의 PAC보존센터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센터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2018년에 개최되는 지역 유네스코 행사들에 IFLA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에는 보존 센터의 강령을 갱신함으로써 센터들이 갖는 강점을 검토하면서 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디지털 보존과 접근성

IFLA는 디지털 보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유네스코 퍼시스트(PERSIST) 프로그램의 창립 멤버로서 IFLA는 퍼시스트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한편, 2017년 8월에 IFLA 이사회가 수립한 디지털통합워킹그룹(Digital Unification Working Group)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등 중요한 진척을 거두었다. IFLA는 또 디지털 납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회원들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IFLA 기존 자료의 적절성과 포괄성을 평가하기 위해 IFLA 전문위원회(Professional Committee)가 설치한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현재의 보존 기준과 지침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위기에 대한 대응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과 관련하여 IFLA의 보존 센터들이 이미 진행한 활동 외에도, IFLA는 지속적으로 블루 실드(Blue Shield)를 이용하고 IFLA의 위험 관리대장(Risk Register)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서관계를 위해 유엔 재난위험경감 샌다이 프레임워크(United Nations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관한 브리핑과 도서관이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IFLA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IFLA는 또 문화재 밀수 문제를 조사하고, 유럽의 개혁 과정에 참여하였다. 희귀 서적과 기타 중요 자료의 절도 및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특히 희귀본 특별장서분과를 통해 다른 NGO들과 협력했다.



## 전략방향 4: 역량강화

유엔의 2030 의제는 도서관 활동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를 재고하여 주요 의사결정자들에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FLA는 수 년간 이 기회를 붙잡고 협회와 기관 및 개인 회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 2018년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많은 결과들이 가시화된 해였다.

### 현장에서의 모멘텀 구축

2016년에 개정된 IFLA의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은 유엔 2030 의제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사서들의 잠재적인 기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도서관이 국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강조된 바 있는 지속 가능개발목표(SDG)를 위한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더하여, 마지막 기금 프로젝트들이 전세계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설문에 의하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약 800여 개의 교육 세션과 행사를 조직하고 각국의 장관과 고위 관료 및 유엔 관계자들과 200여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2만여 명의 사서 외에 추가로 62,000여 명이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 전세계적으로 메시지 전달하기

2018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브룩클린 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과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지원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IFLA 국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 글로벌회의(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Global Convening)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또 유엔 본부를 방문해 자국에서 파견된 대표부와 공직자들을 만났다.

IFLA는 또 유엔 지역사무소가 조직한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다섯 개의 지역 회의에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지역 행사에서 진행된 부대 행사에서 도서관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선언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 행사들은 7월 뉴욕에서 개최된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함께, 개발과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조

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문(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이 2018년 11월에 25주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하여 IFLA의 공공도서관분과(Public Libraries Section)는 소셜미디어에서, IFLA 본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선언문이 어떻게 도서관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2019년에 IFLA는 유네스코와 함께 이 선언문의 25주년을 기념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탐색할 것이다.

### 역량 강화

회원들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성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IFLA의 핵심 활동들이 지속되었다. '강력한 도서관협회 구축(Building Strong Library Associations, BSLA)'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협회들이 설립되고 기존 협회들의 활동이 증진되었다. 또한 우리는 IFLA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고, 도서관계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었던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Leaders Programme, ILP) 제2기를 마무리지었다.

원문 : IFLA Annual Report 2018

번역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nlkpc@korea.kr)